한 편의 시(詩)와 맑고 고운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만나 즐거운 노래가 되었다.
그 노래는 고양에서 나고 자란 작곡가 레마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그녀의 건반 위에 흐르는 시노래와 동요는
선율을 타고 고양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얀 오선지 위에 피어나는 꿈

작곡가 레마

고봉산 사랑
이야기 들어보기

PLAY

"제게 고양은 고향이에요.
제 삶이 담긴 곳인 만큼 지역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고양'은 나의 '고향'

그녀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음표들은 오선 위에 얹어져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로 탄생했다.

"어느 날 우연히 SNS를 보다가 '일산의 산(山)'에 대한 잘못된 글을 읽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지는 것을 보고는 댓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게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고양을 제대로 알리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고봉산 사랑 이야기' 앨범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작곡가 레마(본명 김은선)는 일산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일산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이다. 그만큼 그녀에게 고양은 많은 추억과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애정어린 공간이다.

아이들과 멜로디를 맞추면서
쌓아가는 추억들이 음악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따듯한 마음을 담은 동요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장르를 넓히다

레마가 작곡을 처음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 당시 합창대회에서 부를 곡을 추천해달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자작곡을 건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작곡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한 번 들은 음을 바로 연주할 정도의 타고난 음감과 어린시절부터 가까이한 피아노는 그녀를 작곡의 길로 자연스레 인도했다.

레마의 초등학생 아이 담임이자 동요작사가인 김남숙 선생님과의 만남은 동요앨범 제작으로 이어졌다. 이후 그녀의 작곡활동은 시와 국악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힘들 때마다 읽었던 나태주 시인의 시에 감명받아 곡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16곡을 발표했다. 또, 2020년 <우리말, 우리음악으로 새기는 작은 위로, 노래 되어 부르는 시> 프로젝트에 참여, 정가(正歌)보컬리스트 하윤주와 함께 국악앨범 '황홀극치'를 발표했다.

레마는 요즘 고양 공릉천에 서식하는 희귀동물과 관련한 곡을 구상하고 있다. 고양에 대한 애정을 담은 소재, 아름다운 시에 얹어질 그녀의 선율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된다.

작곡 활동

01 —— 1994년 제2회 EBS청소년창작가요제 입상
02 —— 1999년 MBC강변가요제 금상
03 —— 2017년 KBS 창작동요대회 우수상
04 —— 2021년 충북 단양중학교, 대소중학교 교가 작곡